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를 중심으로 -

-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Traits on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

박 영 애**

Park, Young Yae

최 영 희***

Choi, Young Hee

박 인 전****

Park, In Jeon

Abstract

The subjects of this study on the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on her childrearing behaviors were 1060 mothers and their 5th grade children. Results indicated that maternal childrearing behaviors were related to her personality traits. The effects of mother's personality on her childrearing behaviors varied by sex of child, reporter (mother/child), and childrearing behavior factors. Mother-reported childrearing behaviors correlated more highly with her personality than child-reported behaviors. Behaviors reported by girls provided higher correlations between mother's personality and childrearing dimensions than reports by boys. Mother's personality traits showed differential correlations with childrearing dimensions of Rejection-Restriction (R · R) and Warmth-Acceptance (W · A) by reporter and sex of child. R · R was affected by mother's Impulsiveness more among girls than among boys. Maternal Superiority increased W · A toward boys while maternal Responsibility increased W · A toward girls.

Key word : 어머니의 양육행동(mother's childrearing behaviors), 어머니의 성격특성(mother's personality traits), 성차이(sex difference), 지각차이(perception difference)

* 접수 2002년 2월 8일, 채택 2002년 2월 28일

* 이 논문은 1999년도 학술진흥재단의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KRF-99-C00205).

** 한남대학교 아동복지학과 교수, E-mail : yypark@mail.hannam.ac.kr

*** 수원대학교 아동가족학과 부교수

**** 영남대학교 아동학과 부교수

I. 서 론

아동은 가정, 학교, 지역사회 등을 포함하는 생태 환경과의 관계 속에서 영향을 주고받으며 발달해 가지만 아직도 대부분의 가정에서 아동은 주로 어머니와 많은 시간을 보내며 자라게 되므로 어머니와의 관계는 아동의 발달에 결정적으로 중요하다. 아동이 점차 성장하면서 또래관계나 형제관계를 비롯한 다양한 관계를 경험하게 되지만 아동기의 인간관계는 여전히 어머니와의 관계를 무시할 수 없으므로 어머니의 특성이 아동의 인성 형성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Freud(1952)는 자녀의 행동발달이나 성격발달이 부모를 무의식적으로 동일시하는 동안에 형성된다고 주장하면서 유아기에 있어서 부모와의 관계가 중요하며 특히 어머니의 특성 중에서도 양육태도와 성격을 중요한 요인으로 보았다. 이러한 이유로 어머니의 양육행동 또는 양육태도는 아동의 성장·발달과 매우 관계가 깊으며, 아동에 대한 부모의 양육행동이 부모-자녀 관계의 질을 결정해 줄 뿐 아니라 정서적, 사회적, 인지적 발달을 비롯한 아동의 제반 발달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한 많은 연구들(Becker, 1964; Schaefer, 1965; Rohner, Hann, & Rohner, 1980; Saavedra, 1980)이 있다.

어머니의 성격특성 또한 자녀의 발달에 상당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져왔다. 일찍이 Block(1955)은 부모의 양육태도와 행동은 모두 부모 자신의 성격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므로 부모의 성격특성에 주목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였고(이은수, 1985, 재인용), Jersild(1960)는 부모의 성격은 행동의 결정인자로서 부모 자신의 생활뿐만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태도나 자녀의 성장·발달에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한 바

있다. 우울증 부모를 둔 아동은 일반적으로 사회적 능력이 낮으며, 학문적 유능성에 손상을 입고, 신체적 건강에 있어서의 문제를 보인다(Downey & Coyne, 1990)고 한다. 또한 Cohler와 Grunebaum(1975)도 우울증을 지닌 부모의 자녀들이 일련의 과제 장면에서 지적 능력, 이해력, 집중력이 더 낮았다고 밝혔다. 우울증 어머니의 아동들은 인지 기능에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보였을 뿐 아니라(Beardslee, Bemporad, Keller, & Klerman, 1983) 우울한 부모의 자녀들은 사회적 문제해결 기술 능력에서 특히 취약한 것으로(Beardslee, Schultz, & Selman, 1987) 나타났다. 그리고 박세정, 박인전, 최영희(2000)의 연구에서도 어머니의 우울성향이 높을수록 지적 능력을 비롯한 아동의 전반적 생활능력이 낮음이 밝혀졌다. 자녀의 인지적 능력 뿐 아니라 사회·정서적 특성을 결정하는 많은 요인들이 부모 자신의 성격이나 태도, 그리고 양육행동 양식 등에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우울증 어머니와 자녀간의 상호작용(Bettes, 1988; Cohn, Matias, Tronick, Connell, & Lyons-Ruth, 1986)과 우울증 어머니의 양육의 질을 조사한 연구들(Colletta, 1983; Crnic & Greenberg, 1985; Tronick & Field, 1986)에 의하면, 정서적으로 아이에게 몰입되어 있지 않고 자기 자신에 몰입해 있는 우울증세는 아동의 요구에 따뜻하고 민감하게 대하는 부모의 능력을 저해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정신질환의 심각성 정도를 포함한 부모의 성격 전반은 자녀에게 어느 정도로 민감하고 적절한 양육행동을 하는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어머니의 성격

이나 양육행동이 아동의 성장·발달과 각각 어떠한 관계가 있는지를 살펴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어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이 구체적으로 어떠한 관계를 보이고 있는지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드문 편이다. 부모 성격 특성은 행동의 결정 인자로서 부모 자신의 생활 뿐 아니라 자녀에 대한 양육행동에 영향을 미치며, 이는 곧 자녀의 성장·발달에도 영향을 준다. 일례로 자녀를 수유하거나 취침시키는 방법, 질문에 답하는 방법 등의 육아방식에서 부모의 개인적 성격특성을 관찰할 수 있고, 이러한 부모의 성격특성이 인내를 키우는 요인이 되기도 하고 자녀를 문제아동으로 키우는 분위기를 형성하기도 한다(Jersild, 1962). 한중혜(1980)에 의하면 아버지가 감정적이고 자제력이 적을수록 권위를 강조하고 지배적인 반면, 생산적이고 활동적이며 객관적이고 사색적이며 집단생활을 즐기는 사람일수록 자녀에게 따뜻하고 자녀의 활동과 작업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였다고 한다. 그리고 어머니는 성격이 지도적이고 주동적이며 감정적인 성향이 적을수록 자녀의 권리, 희망, 개성을 존중하고 온화한 태도를 보였으며, 객관적이고 사색적인 특성을 지녔을수록 자녀에게 헌신적이고 관심있는 태도를 보였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부모의 성격과 양육행동은 상호 관련이 있으며, 이들 두 요소는 결과적으로 아동의 성격 형성을 비롯하여 제반 발달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된다. 특히 오늘날의 급속한 사회 변화는 현대 가정의 가족관계에도 커다란 변화를 가져와 부모의 역할 구분이 애매해져 가고 있으며, 가정내에서의 자녀 양육양상도 변화되어가고 있는 실정이다. 하지만 아직까지 자녀의 사회화 및 양육의 상당 부분을 담당하고 있는 어머니는 여전히 자녀와 밀

접한 상호작용을 하고 있으므로 어머니의 양육행동의 특질과 성격은 아동의 성장·발달에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그러므로 아동의 바람직한 성격 형성 및 발달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볼 수 있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간의 관계에 관해 심도있게 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누가 어떻게 측정하느냐에 따라 다른 양상으로 나타날 수 있다. 대체로 볼 때 기존의 선행 연구에서는 양육행동을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측정하고 있다. 하나는 부모가 직접 자신의 양육행동을 보고하는 방식(김정아, 1990; 한중혜, 1980; Baumrind, 1967, 1973)이며, 다른 하나는 자녀가 지각하는 부모 양육행동을 조사하는 것(박영애 외, 2000; 주소영, 1995; Saavedra, 1980)이다. 이들 두 관점의 연구들이 보고하는 연구결과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나 부분적으로는 유사한 경향을 보여, 애정적이고 자율적이며 합리적이고 성취지향적인 부모행동이 아동의 긍정적 발달과 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부모의 실제 행동보다 부모의 양육행동에 대한 자녀의 지각이 자녀의 행동과 적용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Schaefer(1965)의 주장이라든가 가족간의 상호작용이나 부모-자녀 관계에 관한 정보를 부모에게만 의존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주장들(Demo, Small, & Savin-Williams, 1987; Tein, Roosa & Michaels, 1994), 양육행동이나 가족관계에 관한 정보를 자녀의 지각이나 부모의 보고 어느 한쪽에만 의존하는 것이 문제가 있고 그로 인해 오히려 결과간 불일치가 심화된다는 주장들(Gecas, & Schwalbe, 1986; Jessop, 1981)을 고려해 볼 때, 어느 한쪽만의 견해를 신뢰하거나 활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자녀를 대하는 부모의 행동은 자녀의 성에 따라 달라진다는 주장(박성연, 도현심, 정승원, 1996, 재인용), 부모의 성격이 자녀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에서 성별의 차이를 밝힌 일부 연구들(윤은수, 1982; 이종용, 1981),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어머니의 양육태도와의 상관성이 자녀 성별에 따라서 차이를 보이고 있다는 연구결과(조만선, 1996)들에 의하면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도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다르게 나타나고 있음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배경에서 본 연구는 어머니의 성격과 결코 분리될 수 없는 양육행동이 과연 성격과는 어떤 식으로 얼마나 상관이 있으며 성격이 양육행동을 어느 정도 설명해 줄 수 있는가 하는데 대한 이해를 기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특히 이러한 관계가 아동의 성에 따라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살펴봄으로써 어머니의 성격과 그에 따른 양육행동이 아들과 딸에 있어 어떻게 다르게 나타나는지를 알아보고자 한다. 아울러 아동연구에서 빈번히 다루어지는 양육행동이 누구의 관점에서 지각한 것인가에 따라 어떻게 다른지, 또는 어떤 점이 얼마나 비슷한지에 대해 살펴봄으로써 부모 또는 자녀를 단일 정보원으로 사용했을 때 간과하거나 잘못

판단할 수 있는 측면들에 대한 이해를 얻고, 이를 앞으로의 연구 설계와 결과 해석에 활용할 수 있기를 기대한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관계를 살펴보는 데 있어서 먼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어머니의 관점과 아동의 관점에서 평가하여 이들 간의 상호관련성의 정도를 파악해 보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어머니 지각 양육행동과 아동 지각 양육행동이 각각 어머니 성격과 어느 정도 관계가 있는지를 알아보며, 나아가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을 아동의 성별에 따라서 분석해 보고자 한다.

본 연구의 연구문제는 다음과 같이 설정되었다.

1.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은 과연 얼마나 비슷하면 어떻게 다른가?
2.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양육행동의 지각 주체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3. 어머니의 성격 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은 양육행동의 지각 주체에 및 아동의 성별에 따라 어떻게 다른가?

II. 연구방법

1. 연구대상

연구대상의 선정은 교사들에 의해 평균적으로 중산층 가정의 아동들이 주로 다니는 학교라고 평가되는 초등학교를 서울, 수원, 대전, 대구지역에서 각 1개교씩 선정하여 그중 초등

학교 5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 총 1,060쌍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대상자의 지역분포는 서울 216쌍, 수원 257쌍, 대전 285쌍, 그리고 대구 346쌍이었다. 어머니들의 교육수준은 고졸이 58.4%로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전문대졸을 포함한 대졸 이상은 33%였다.

아버지 직업은 자영업과 일반 판매직이 31.1%로 가장 많았으며 기술직/관리직이 30.0%, 사무직 또는 계장급 이하 공무원이나 회사원이 19.2%의 순이었다. 그리고 대상 가정의 월평균 소득은 150~200만원 미만(31.9%)로 가장 많은 비율을 차지하였으며 150만원 미만(27.2%), 200~250만원 미만(17.7%)의 순으로 나타났다.

2. 측정도구

본 연구에서 사용된 측정도구는 크게 두가지로서,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측정하는 검사지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평정하는 질문지형 척도이다.

1) 어머니의 성격특성

어머니의 성격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69)가 엮고 중앙적성연구소에서 제작하였으며 진단과 해석을 위한 기준이 1996년에 개정된 성인용 성격진단검사를 사용하였다. 이 도구는 성인의 성격 및 인성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제작된 표준화 검사로서, 총 15개 척도의 350개 문항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한 개의 타당도 척도와 아홉 개의 기술척도 및 다섯 개의 임상척도로 구성되어 있다.

본 연구는 기술척도 부분을 활용하였으며, 분석에 사용된 9개 성격 하위요인의 내용특성은 다음과 같다.

- ① 안정성 : 정서적 안정성과 정신적 균형의 유지, 감정의 안전 및 평온, 확고한 자신과 낙관, 조용하고 침착하며 태연함 등을 의미한다.
- ② 지배성 : 대인관계에서의 과업 수행·결정·결단 등의 과정에서 보여주는 지도력, 주도력, 창안력, 통솔력 및 진취성과 박력, 그리고 집단에의 적극적 참여 등을 의미한다.

③ 사회성 : 대인관계, 사회관계에서의 사교성, 굳거성, 협동성, 사회적 의존성, 모방성, 유통 용의성, 대인 순응성, 관용성 등을 의미한다.

④ 책임성 : 인내성, 주의집중, 자기통제, 자율성, 끈기, 성취동기, 의지력, 신뢰성을 포함하며, 책임을 신중히 생각하고 맡은 일을 끈기있게 완수하며 자발성이 강한 것을 말한다.

⑤ 사려성 : 심사숙고하고, 행동보다 사색에 시간을 보내며, 이론적, 반성적, 공상적인 경향을 지니고, 사태의 원인규명, 반박, 논증 등을 즐기는 이지적 경향을 의미한다.

⑥ 동조성 : 순응성, 준법성, 도덕성, 동화성, 순종성 등을 포함하며, 조화와 원만을 즐기고 전통의 좋은 점을 높이 평가하고 따르는 성격 경향을 의미한다.

⑦ 남향성 : 남성적인 성격특성으로 정력, 운동, 노동이 필요한 활동적인 일을 즐기며, 일반적으로 흥미, 역할에 있어서도 쉽게 여성적 경향과 구별된다.

⑧ 충동성 : 단순성, 사태의 감정적 처리, 즉흥성, 폭발성, 자유분방성 등을 말하며 판단이나 행동이 기분에 좌우되고 침착성과 자제력이 결여된 것을 의미한다.

⑨ 우월성 : 우월감·열등감의 정도를 표현하는 것으로서, 우월감이 높을 때는 자신감과 자기 과시적인 행동이 강하게 나타나는 것을 의미한다.

각 문항은 '예', '아니오'로 응답하도록 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는 각 영역의 특성이 높음을 의미한다. 각 하위척도의 신뢰도는 Spearman-Brown의 기우반분신뢰도 공식을 사용한 결과 .71에서 .90으로 나왔다.

2) 어머니 양육행동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알아보기 위하여 Sch-

aefer의 어머니 양육행동 모형을 근거로 박영애(1995)가 개발한 양육행동 척도를 약간의 표현상의 수정을 거쳐 사용하였다. 척도는 아동에 대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주요 차원들에 걸친 다양한 내용의 문항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의 3요인 구조를 지닌다. 양육행동 척도에는 일반적으로 부모의 자기평정 형태로 된 것과 아동에 의한 평정의 형태로 된 것이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이 두가지를 다 사용하였다. 응답은 평소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근거로 하여 그것이 문항 내용과 일치하는 정도에 따라 '아주 비슷하다(4점)', '대체로 비슷하다(3점)', '별로 비슷하지 않다(2점)', 그리고 '아주 다르다(1점)' 중의 하나를 선택하는 4점 척도로 구성되어 있으며, 높은 점수를 얻을수록 그러한 특성이 많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 사용되는 어머니 양육행동의 세 가지 하위 요인인 온정·수용, 거부·제재, 그리고 허용·방임의 개념은 다음과 같다.

① 온정·수용: 아동에 대한 애정표현, 온정적 태도, 수용, 존중, 이해, 긍정적 평가, 관심과 참여 및 경험의 공유, 대화와 설명, 아동의 잠재력에 대한 신뢰와 지원, 지도의 합리성, 그리고 자율성 및 독립성 장려 등의 부모 행동을 포함한다.

② 거부·제재: 아동에 대한 불안, 부정적 평가 또는 비난, 부정적 감정 표현, 적대적 감정적 훈육, 무시와 비하, 억압, 잔소리, 불신 그리고 침해적 개입 등의 행동들을 포함한다.

③ 허용·방임: 아동의 요구를 과다하게 수용해 주는 익애, 굴복형 허용, 무책임·무관심

형 방임 등의 행동들이 포함된다.

각 하위 요인별 내적 합치도(Cronbach's α)는 어머니 지각인 경우는 .80~.91이었고, 아동 지각인 경우는 .65~.94로 나타났다.

3. 연구절차 및 자료분석

본 연구 수행을 위한 자료 수집은 예비조사(2000년 2월)와 본 조사(2000년 5월)로 두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예비조사는 대전시내 1개 초등학교 5학년을 대상으로 하였고, 본 조사는 전국 4개 도시(서울, 수원, 대전 대구)에서 예비조사와 중복되지 않는 학교를 각 1개교씩 선정하여 5학년 전원과 그들의 어머니로 하여금 질문지에 응답하게 하는 형식으로 이루어졌다. 연구자가 학급담임에게 연구의 취지와 질문지 배부/회수 방식에 대해 설명하였고, 담임교사들이 학생들에게 질문지 응답방식과 관련 지침들을 설명해주고서 질문지를 배부하고 회수하였다. 어머니와 아동 각자가 성격검사와 양육행동 척도에 응답하게 함으로써 각자의 성격검사 결과와 아울러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에 관한 정보를 동시에 수집하였다. 질문지는 총 1113쌍의 어머니-자녀쌍에게 배부되어 1104쌍에게서 회수되었고, 그 중 불충실하게 응답한 경우를 제외한 1060쌍의 설문지가 최종 자료분석에 사용되었다.

수집된 자료는 한글 SPSSWIN Program을 이용하여 빈도, 평균, 표준편차, 대응표본 t-test, Pearson의 상관관계분석, 단계적 회귀분석 등의 통계기법으로 분석되었다.

Ⅲ. 결과 및 해석

1.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관계

어머니 자신이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본 결과는 <표 1>과 같다.

<표 1>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

어머니지각 \ 아동 지각	온정 · 수용 거부 · 제재 허용 · 방임		
온정 · 수용	.231***	-.099**	-.025
거부 · 제재	-.129***	.228***	.015
허용 · 방임	-.007	-.026	.146***

** p<.01 *** p<.001

<표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어머니 지각과 아동지각간의 상관관계는 그다지 높지 않음을 알 수 있는데, 먼저 온정 · 수용의 경우는 어머니 지각과 아동 지각간의 상관이 .231, 거부 · 제재의 경우는 .228, 허용 · 방임의 경우는 .146의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유의도가 높게 나온 것은 이들 간의 상관관계가 기본적으로는 어느 정도 일관성있게 존재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하면, 대체로 어머니가 자신의 양육행동을 온정 · 수용적, 거부 · 제재적, 또는 허용 · 방임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아동도 그와 같이 지각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비록 이들 상관계수가 높은 유의도를 보였다고는 하나 계수 자체가 낮은 수준에 머무른 것은 어머니 양육행동이라는 동일 변인도 누가 지각한 것인가에 따라 내용의 차이가 상당히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 하겠다.

추가적으로 어머니 양육행동을 어머니 자신이 지각했을 때와 아동이 지각했을 때 차이가 있는지를 살펴본 결과, <표 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전체와 남아 및 여아 모든 집단에서 온정 · 수용성의 경우, 어머니보다 아동이 더 높게 지각함을 알 수 있으며, 이는 아동이 어머니보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온정적이고 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의미한다.

<표 2>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의 차이

양육행동	어머니 지각 M(SD)	아동 지각 M(SD)	t값
온정 · 수용	전체 3.16(.37)	3.24(.47)	-4.983***
	남아 3.15(.35)	3.24(.46)	-3.508***
	여아 3.16(.37)	3.25(.50)	-3.673***
거부 · 제재	전체 2.26(.48)	2.13(.46)	7.420***
	남아 2.29(.47)	2.22(.46)	2.852**
	여아 2.23(.49)	2.02(.43)	7.909***
허용 · 방임	전체 2.02(.42)	2.09(.43)	-3.674***
	남아 2.02(.42)	2.10(.44)	-3.293**
	여아 2.02(.41)	2.07(.40)	-2.018*

* p<.05 ** p<.01 *** p<.001

거부 · 제재의 경우에는 반대로 어머니가 아동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아동보다 아동에게 거부적이고 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는 비율이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허용 · 방임의 경우, 아동이 어머니보다 더 높게 지각하는 것으로 나타나 아동이 어머니보다 어머니가 아동에게 허용적이고 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1) 어머니 성격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들간의 상관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전체 아동, 남아, 여아의 세 집단으로 나누어 Pearson의 적률상관관계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3>과 같다.

먼저 온정·수용성을 보면,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 없이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이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 충동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 성격특성 중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 책임성, 우월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들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특히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은 다른 성격특성에 비해 온정·수용성과 다소 더 높은 상관을 보여 이들이 어머니의 온정·수용적 양육행동과 보다 밀접히 연관되어 있음을 말해준다.

거부·제재성을 보면, 거부·제재적인 양육

행동은 우월성, 충동성,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지배성과 상관이 유의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들 중 특히 어머니의 우월성, 안정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녀에게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남녀간의 차이를 보면, 남아에 대해서는 어머니가 우월성·안정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성이 낮아지나 여아의 경우는 특히 어머니의 충동성이 낮을수록, 그리고 우월성, 안정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성이 낮아짐을 알 수 있다. 특히 안정성, 충동성, 우월성에서는 여아가 더 높은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특히 충동성이 낮고 안정성과 우월성이 높은 것이 여아에 대한 어머니의 거부·제재성을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남녀간에 뚜렷한 차이없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안정성, 책임성, 충동성, 우월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여 어머니의 안정성, 책임성, 우월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녀에게 방임적이고 허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임을 알 수 있다.

<표 3>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

성격	양육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안정성	.064	.048	.064	-.408***	-.340***	-.472***	-.155***	-.123**	-.191***			
지배성	.267***	.286***	.228***	-.161***	-.203***	-.119*	-.067*	-.074	-.041			
사회성	.207***	.205***	.194***	-.304***	-.290***	-.318***	-.104**	-.110*	-.089			
책임성	.185***	.213***	.139**	-.275***	-.239***	-.295***	-.237***	-.236***	-.239***			
사려성	.223***	.172***	.271***	.022	-.021	.057	-.070*	-.058	-.101*			
동조성	.047	.032	.050	.091**	.074	.086	.049	.019	.085			
남향성	-.068*	-.050	-.095	-.123***	-.066	-.186***	.020	.100*	-.044			
충동성	-.143***	-.159**	-.125*	.418***	.321***	.518***	.210***	.196***	.247***			
우월성	.173***	.179***	.169**	-.422***	-.359***	-.481***	-.188***	-.153**	-.230***			

* p<.05 ** p<.01 *** p<.001

2) 어머니 성격특성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 행동과의 관계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의 각 하위요인들과의 상관관계를 분석해 본 결과는 <표 4>와 같다.

<표 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아동 전체 집단으로 볼 때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는 어머니 성격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와는 달리 상관계수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에 대한 아동 지각의 경우는 어머니의 우월성과 사회성이, 거부·제재성에 대한 아동의 지각은 어머니의 우월성과 충동성이, 낮지만 유의한 상관을 보였다. 이는 어머니 자신이 보고한 양육행동과의 관계(표 3)에서 온정·수용성과는 지배성(.267)과 사려성(.223)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는 차이가 나는 결과이며, 거부·제재성과는 우월성(-.422)과 충동성(.418)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였던 것과는 일치하는 결과이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온정·수용에 대한 지각은 어머니 성격 특성 중 특히 우월성 및 안

정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고, 여아는 사회성, 우월성 및 책임성과의 상관이 유의하였다. 이는 <표 3>에서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지배성과 양육행동의 온정·수용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이라든가, 여아의 경우 어머니의 사회성이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는 다른 결과이다. 어머니의 거부·제재에 대한 남아의 지각은 우월성 및 안정성과, 여아는 우월성, 충동성 및 사회성과 유의한 상관이 있었다. 이러한 경향은 <표 3>에서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남아의 경우 우월성 및 안정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 일치하며, 여아의 경우 충동성 및 우월성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인 것과도 일치한다. 그러나 남아의 경우 어머니의 지배성, 책임성, 충동성이, 여아의 경우 안정성, 책임성 등이 양육의 거부·제재성과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은 것은 어머니 지각과 아동 지각의 차이를 드러내는 부분이다. 즉 어머니가 자신의 지배성과 책임성이 높을수록 양육의 거부·제재성은 낮아진다고 지각하고 있는데 반해 아동들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남아의 경우 어머니는 자신의 지배성, 사회성, 책임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거부·제재성이 낮

<표 4>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전체	남아	여아
안정성	.097**	.092*	.091	-.099**	-.097*	-.083	-.001	.003	-.008
지배성	.059	.047	.086	.011	-.007	-.003	.015	.028	-.020
사회성	.117***	.083	.148**	-.102**	-.085	-.136**	.034	.053	.046
책임성	.078*	.036	.101*	-.051	-.032	-.027	-.015	.021	-.053
사려성	.006	-.060	.090	-.005	-.048	.043	-.085*	-.093	-.078
동조성	-.017	-.050	.005	-.024	.022	-.064	.009	.055	-.045
남향성	-.010	.034	-.049	.015	.013	-.007	.011	.069	-.058
충동성	-.053	-.042	-.046	.122***	.075	.137**	.037	.057	.007
우월성	.130***	.107*	.137**	-.139***	-.130**	-.162**	-.047	-.067	-.038

* p<.05 ** p<.01 *** p<.001

다고 지각하였으나 남아 자신들의 지각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여아의 경우도 어머니는 자신의 안정성, 책임성, 남향성 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덜 보인다고 지각한 반면 여아 자신들의 지각에서는 그렇게 나타나지 않았다는 것이다.

3.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1) 어머니 성격특성이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성격특성이 어머니 지각 양육행동 즉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를 구분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결과는 <표 5>와 같다.

<표 5> 어머니 지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성격 특성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구분	독립변인	B	β	R ²	F값
온정·수용	남아	지배성	.017	.276***	.133	17.390***
		충동성	-.013	-.164**		
		사려성	.008	.113*		
거부·제재	여아	우월성	.014	.217***	.141	13.492***
		남향성	-.019	-.216***		
		사려성	.014	.209***		
		지배성	.003	.148**		
허용·방임	남아	충동성	.025	.247***	.153	30.612***
		우월성	-.018	-.201**		
허용·방임	여아	충동성	.039	.388***	.309	74.344***
		우월성	-.020	-.227***		
		책임성	-.017	-.229***		
허용·방임	여아	책임성	-.015	-.188**	.103	12.711***
		충동성	.014	.165**		
		동조성	.012	.113*		

* p<.05 ** p<.01 ***p<.001

<표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먼저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을 보면, 남아의 경우 어머니가 본 자신의 온정·수용성을 잘 예측해 주는 성격변인은 지배성($\beta = .276$), 충동성($\beta = -.164$), 사려성($\beta = .113$)의 순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13.3%였다. 이는 어머니가 지배성과 사려성이 높고 충동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아의 경우, 어머니가 본 자신의 온정·수용성을 가장 잘 예측해주는 성격변인은 우월성($\beta = .217$), 남향성($\beta = -.216$), 사려성($\beta = .209$)의 순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14.1%였다. 이는 자녀가 여아인 경우 어머니가 우월성, 사려성 등이 높고 남향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보면, 남아, 여아의 경우 모두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의 예언변인이 충동성($\beta = .247, 388$)과 우월성($\beta = -.201, -.227$)으로 나타나 어머니가 충동성이 높고 우월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남·여아 공히 어머니의 성격 특성 중 충동성과 우월성이 어머니 지각 양육행동에 중요한 변수로 작용함을 알 수 있으며, 이들 성격특성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총 설명력은 남아의 경우 15.3%, 여아의 경우는 30.9%로 나타나 여아가 남아에 비해 설명력이 두배 정도로 높게 나왔다. 이는 어머니의 충동성과 우월성 성격특성이 어머니의 거부·제재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볼 때, 여아가 남아보다 훨씬 더 많은 영향을 받으며, 어머니의 이와같은 성격특성에 남아보다 여아가 더 민감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을 보면, 남아의 경우,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언변인은 책임성($\beta = -.229$)으로 5.2%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책임성이 낮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의 예언변인은 충동성($\beta = .165$), 책임성($\beta = -.188$), 동조성($\beta = .113$)의 순으로 나타났고, 총 설명력은 10.3%였다. 즉 자녀가 여아인 경우 어머니가 책임성이 낮고 충동성과 동조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는 자신의 양육행동이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성격특성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설명하는 설명력도 남아는 5.2%에 불과한데 비해 여아는 10.3%로 나타나 여아가 두배 정도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2) 어머니 성격특성이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

어머니 성격특성이 아동 지각 양육행동 즉 온정·수용, 거부·제재, 허용·방임에 각각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기 위해 남아와 여아로 구분하여 단계적(stepwise) 중다회귀 분석을 실시한 결과는 <표 6>과 같다.

<표 6> 아동 지각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성격 특성의 단계적 중다회귀분석

종속 변인	구분	독립변인	B	β	R ²	F값
온정·수용	남아	우월성	.009	.110*	.012	4.136*
	여아	책임성	.012	.124*	.015	5.175*
거부·제재	남아	우월성	-.010	-.117*	.014	4.698*
	여아	사회성	-.014	-.178**	.032	10.834**
허용·방임	남아					
	여아	남향성	-.011	-.110*	.012	4.084*

* p<.05 **p<.01

<표 6>에서 볼 수 있듯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 특성에 대한 어머니의 성격변인의 설명력은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에 대한 설명력(표 5)에 비해 크기 떨어지며 모델 적합도의 유의도 수준도 비교적 낮게 나왔다. 상이한 변인을 측정하는 경우에도 응답자가 동일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은 경우에 비해 측정치들간에 상관관계가 높게 나오며, 또한 그럴 수 밖에 없음을 선행연구들이 지적하고 입증해 온 것을 상기하면 <표 5>에 비해 <표 6>의 결과가 약하게 나온 것은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가지 어머니 성격특성들이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을 유의하게 설명하고 있음은 주목할만하다 하겠다.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온정·수용성에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미치는 영향은, 우선 자녀가 남아인 경우에는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언변인은 우월성($\beta = .110$)으로 1.2%의 설명력을 보였다. 즉 자녀가 남아인 경우, 어머니가 우월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였다는 것이다. 여아의 경우,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언변인은 책임성($\beta = .124$)으로 1.5%의 설명력을 나타내었다. 즉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책임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였다는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에 제시된 어머니 지각 양육행동의 경우와 다르게 나온 부분이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거부·제재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아의 경우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언변인은 우월성($\beta = -.117$)으로서 1.4%의 설명력을 보이는 것으로 나와 어머니가 우월성이 낮을수록 남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

제재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여아의 경우,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의 유의한 예언변인은 사회성($\beta=-.178$)으로 3.2%의 설명력을 보였는데, 이는 어머니가 사회성이 낮을수록 여아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였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 중에서는 어머니의 거부·제재성에 대한 우월성 특성의 설명력만이 <표 5>의 어머니 지각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부분이다.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의 허용·방임성에 미치는 영향을 보면, 남아의 경우는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일관되게 예측해 줄 수 있는 예언변인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남향성($\beta=-.110$)이 1.2%의 설명력을 지니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어머니가 남향성이 낮을수록 여아는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허용·방임적이라고 지각하는 경향이 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결과는 <표 5>의 어머니 지각 분석결과와 불일치를 보인다.

IV. 논의 및 결론

1. 요약 및 논의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살펴보았는데, 연구의 주요 결과를 요약하고 논의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간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둘간의 상관관계가 그리 높지 않았으나 대체로 정적 상관을 보여, 아동이 어머니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할수록 어머니도 자신의 양육행동을 그런 식으로 지각하고 있음을 볼 수 있었다. 하지만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양육행동간의 차이를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아동이 어머니보다 양육행동을 더 온정적·수용적이라고 지각하였고, 거부적·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는 지각은 어머니가 아동보다 높았다. 그리고 허용적·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인다고 지각 한쪽은 아동이었다.

둘째,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전체적으로 어머니는 지배성, 사려성, 사회성 등이 높을수록 스스로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그리고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우월성, 안정성, 사회성, 책임성 등이 높고, 충동성향이 낮을수록 어머니 스스로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덜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또한 어머니가 책임성이 낮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어머니들의 인성특성 중 객관성, 사려성, 사회성이 높을수록 어머니들의 양육태도는 애정적, 외향적, 긍정적 평가 태도를 보였고, 안정성이 낮을수록 양육태도는 외향적이며, 사회성이 낮을수록 의존성 조장 태도를 취한다고 밝힌 이은수(1985)의 연구결과와 부분적으로 유사한 맥락을 지니고 있다. 또한 본 연구의 이러한 결과는 박영애와 최은경(2001)의 연구결과와도 상통하는 바가 있다. 비록 다른 성

격검사(MMPI 축약형)를 사용하기는 하였으나, 부모의 양육행동과 인성 요인들간의 관계 분석에서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몇 가지 성격 하위 요인들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양육 요인들 중 온정·수용은 어머니 성격특성 중 반사회성과 부적상관을, 거부·제재는 편집증과 정적상관을, 경조증과 부적상관을, 그리고 허용·방임은 자신의 신체에 대한 건강염려증과 정적상관을 보이는 것으로 나왔다. 이러한 반사회성의 부정적 영향은 본 연구에서 사회성이 온정·수용성을 높여주었다는 결과와 상통한다. 편집증과 경조증이 거부·제재성을 높인다는 것은 편집증이 호기심을 기본차원으로 하면서 대인관계에 예민함, 남의 탓을 하거나 의심이 많음, 피해의식과 상실감 또는 죄책감이 많음 등의 의미를 지니며, 경조증이 깊이가 결여된 열의와 과잉활동, 불안정, 흥분, 과장, 민감, 자아가치와 자아정체에 대한 의문의 의미를 포함하는 개념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본 연구에서 우월성, 안정성, 사회성, 책임감이 낮고 충동성이 높을수록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였다는 결과와 일맥상통한다고 볼 수 있다.

어머니의 지배성과 사려성이, 그 중에서도 특히 지배성이 온정·수용적 양육과 정적상관을 보인 것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부분이다. 이것은 어머니 자신이 평가한 양육행동을 분석한 데서 발견된 것인데, 이같은 결과는 자기보고식 방법을 통한 양육행동 측정이 다소 부정확하거나 왜곡될 수 있음을 반증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더구나 아동이 평가한 양육의 온정·수용성은 어머니 성격의 지배성, 사려성 등과 전혀 유의한 상관을 보이지 않거나 오히려 이러한 설명을 지지해준다.

자녀의 성별에 따른 차이를 살펴보면, 특히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에 있어서 상이한 양상을 띄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자녀가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특히 우월성과 안정성이 낮을수록 어머니 스스로 자녀에 대해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지각하였다. 반면, 자녀가 여아인 경우에는, 어머니가 특히 충동성이 높을수록 자녀에 대해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인다고 생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기본적으로는 어머니가 본 자신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성격특성 중 다른 요인들보다는 주로 충동성(+), 우월성(-), 안정성(-)등과 높은 상관을 보인다는 것을 의미하지만, 상관계수의 크기를 보면 여아인 경우는 이러한 어머니 성격요인들이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보이는 상관이 남아보다 높으며 특히 충동성의 경우가 그러함을 알 수 있다. 어머니의 성격의 충동성향과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과의 상관은 남아인 경우보다 여아인 경우에 더 높게 나타났다. 이는 딸에 대한 거부·제재는 어머니 성격의 다른 요인들보다는 충동성에 기인하는 부분이 많음을 시사해준다. 이러한 결과들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이 어머니의 성격과 결코 무관할 수 없음을 입증해주는 것이며, 앞서 언급된 Block(1955)과 Jersild(1960)의 주장들을 강력히 지지해 주는 것이다.

반면,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본 결과, 어머니 성격과 양육행동간의 상관은 어머니 지각의 경우와 달리 상관이 거의 없고 유의수준에 미치는 것도 훨씬 적음을 볼 수 있다. 이는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상관이 매우 낮게 나온 조만선(1996)의 연구결과와 유사하다.

셋째, 단계적 회귀분석을 통해 어머니 성격특성이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

치는 영향을 살펴본 결과에 의하면, 온정·수용성의 경우, 자녀가 남아이든 여아이든 간에 어머니의 지배성과 사려성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였고, 남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충동성(-)이, 여아의 경우에는 어머니의 남향성(-)이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의 경우에는 충동성과 우월성이 가장 중요하게 영향을 미치는 변수로 나타났는데, 이는 충동성이 높을수록 권위·통제적인 양육태도를 보인다는 한중혜의 보고(1980)와 유사하다. 거부·제재에 대한 설명력은 여아가 남아에 비해 두배로 나타났는데, 이는 어머니가 충동성이 높고 우월성이 낮을수록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더 많이 보이는 경향은 자녀가 남아인 경우보다 여아인 경우에 훨씬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여아인 경우 어머니가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데는 특히 어머니의 충동성이 크게 작용하고 있음을 말해준다. 이러한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은 온정·수용이나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 비해 어머니 성격에 의한 영향을 더 많이 받는다고 할 수 있다. 그리고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남녀 공히 어머니의 책임성이 중요한 변수로 나타나, 어머니가 책임성이 낮을수록 허용·방임적인 양육행동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어머니의 성격이 허용·방임성을 설명하는 정도도 남아에 비해 여아가 두배로 높게 나와 허용·방임성도 거부·제재성과 마찬가지로 어머니 성격에 의해 영향을 받는 정도가 남아보다 여아에게 있어 훨씬 더 높음을 알 수 있다. 어머니 성격특성이 어머니가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에 미치는 영향력을 종합적으로 보면 자녀가 남아인 경우보다 여아인 경우가 더 민감하게 영향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한편, 어머니의 성격특성이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을 얼마나 설명해주는 가를 살펴본 결과도 역시 어머니가 지각한 양육행동을 보았을 때와는 다른 양상을 보였으며 전체적인 설명력도 매우 낮게 나왔다. 그러나 유의하게 나온 결과를 중심으로 살펴보면, 먼저 온정·수용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가 남아일 때는 어머니가 우월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였으며, 자녀가 여아인 경우는 어머니가 책임성이 높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온정·수용적이라고 지각하였다. 거부·제재적인 양육행동의 경우, 자녀가 남아일 때 어머니가 우월성이 낮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였고, 자녀가 여아일 경우에는 어머니가 사회성이 낮을수록 아동은 어머니의 양육행동을 거부·제재적이라고 지각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보아, 자녀가 남아인 경우, 어머니의 성격특성 중 특히 우월성이 아동이 지각하는 온정·수용, 거부·제재 등의 양육행동에 의미있는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또한 여아의 경우는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을 특히 어머니의 사회성과 결부시켜 경험하는 경향이 있음을 알 수 있다.

2. 결론 및 제언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 분석 및 양육행동 요인들에 대한 성격요인들의 단계적 회귀분석의 결과들을 요약하고 논의한 바에 의하면 양육행동에 대한 어머니 성격요인들의 영향력은 이처럼 양육행동에 대한 지각의 주체(어머니/아동)에 따라, 양육행동의 각 요인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다. 이로써 본 연구는 다음

과 같은 결론들을 도출하였다.

첫째, 어머니의 양육행동은 어머니의 성격 특성과 의미있는 상관 관계가 있다.

둘째,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 간에는 유의한 상관관계가 존재한다. 그러나 그 상관관계는 낮은 편이다.

셋째, 어머니의 성격과 어머니가 지각한 자신의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에서 성격요인들과 가장 높은 상관관계를 보이는 것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고 그 다음이 온정·수용이다. 어머니의 성격요인으로 인해 양육행동이 영향을 받는 정도는 대체로 여아의 경우가 남아의 경우의 두 배 정도인데, 이는 특히 어머니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과 허용·방임적 양육행동에서 그러하다.

넷째, 어머니의 성격과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행동과의 상관관계는 어머니 지각의 경우에 비해 그 강도와 유의도가 크게 떨어지며 내용도 차이를 보인다. 그러나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이 성격특성들과 가장 높은 상관을 보이는 것은 유사한 점이다. 주목할만한 내용상의 차이는 어머니 지각 양육행동의 경우, 어머니의 충동적 성격이 남아의 경우는 여아에 비해 양육의 온정·수용성을 더 많이 떨어뜨리나 여아의 경우는 남아에 비해 거부·제재성을 더 높이는 경향이 있고, 또한 남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충동성이 온정·수용성을 떨어뜨리나 여아의 경우는 어머니의 남향성이 온정·수용성을 떨어뜨린다. 거부·제재성이나 허용·방임성과 같은 부정적 양육행동은 그것이 여아를 향한 것일 때 어머니의 성격, 특히 충동성에 의해 훨씬 더 크게 영향을 받는다. 아동지각 양육행동의 경우는, 남아는 어머니의 우월성이 양육의 온정·수용성을 높이거나 여아는 어머니

의 책임성이 온정·수용성을 높인다. 그리고 남아는 어머니의 우월성이 양육의 거부·제재성을 낮춰주지만 여아는 어머니의 사회성이 거부·제재성을 낮춰준다.

이상의 논의와 결론에 이어 본 연구는 다음의 몇 가지 제언을 추가하고자 한다.

첫째, 본 연구는 비교적 대규모 표집을 대상으로 하고 아동의 성에 따른 차이를 함께 살펴 보기는 하였으나 그 대상이 초등학교 5학년 아동과 그들의 어머니에 한정된 것으로 저학년 아동이나 유아와 그들의 부모에게 그대로 적용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을 수 있다는 제한을 지닌다. 유사한 변인을 다룬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관계 양상이 저학년과 고학년 아동집단 간에서 서로 다르게 나타난 바가 있는 만큼(박영애, 최은경, 2001), 아동의 연령에 따른 차이, 또는 발달적 차이를 함께 이해하기 위한 체계적, 보완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둘째, 본 연구에서 어머니의 성격과 양육행동과의 관계가 양육행동의 평가주체에 따라, 양육행동의 하위요인에 따라, 그리고 아동의 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고 내용적으로 차이를 보인것은 본 연구의 후속연구 및 관련 연구들의 계획과 수행 과정에, 그리고 그 결과의 해석에 적절히 참작되고 반영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자녀 양육에서 어머니의 성격이 더 크게 영향을 미치는 행동, 즉 성격이 있는 그대로 더 드러나는 것은 아들 보다 딸에 대한 양육행동에서라는 것, 어머니의 성격이 더 큰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은 온정·수용보다는 거부·제재, 즉 보다 부정적인 양육행동에서라는 것, 아들에 대한 온정·수용성은 충동성의 억제를 통해 나타나는 데 비해(어머니 지각의 경우) 딸에 대한 온정·수용성은 책임성

을 통해 나타난다는 것(아동 지각의 경우), 어머니의 충동성이 아들에게는 온정·수용성의 감소를, 딸에게는 거부·제재성의 증가를 가져온다는 것(어머니 지각의 경우), 어머니의 우월성이 온정·수용적 양육행동의 증가와 거부·제재적 양육행동의 감소를 가져오는데 매우 중요한 성격특성이라는 것 등은 여러가지로 시사해주는 바가 있고 새로운 연구에 응용해 볼 만한 내용들이라고 생각된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차이(특히 어머니와 아동의 지각 차이, 남아와 여아간의 대한 차이)는 자녀 양육시에 반드시 의식되고 고려되어야 할 점들로서, 어머니들을 위한 부모교육 내용에도 반영되어야 할 것이다.

셋째, 본 연구에서는 어머니의 성격특성만을 살펴보았지만 최근 아버지의 자녀양육 참여가 증가하고 있고, 자녀의 바람직한 성장·발달에

있어서 아버지의 역할이 중요하게 대두되고 있는 시점에서 어머니뿐만 아니라 아버지의 성격 특성이 양육행동과 구체적으로 어떠한 상관을 보이며 이는 자녀의 성장·발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에 대한 보다 포괄적이고도 조직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본 연구는 그 자체가 지닌 제한점에도 불구하고 양육행동과 어머니의 성격과의 관계를 규명함에 있어 어머니의 지각과 아동의 지각 둘 다를 분석하고 비교해 보았다는 점에서 그 의의를 찾을 수 있고, 또한 그러한 관계의 양상이 아동의 성에 따라, 그리고 양육행동 각 하위요인에 따라 달리 나타남을 발견하였다는 점에서 나름대로 기여하는 바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 고 문 헌

- 김정아(1990). 아동의 사회적 능력과 관련된 제변인에 관한 연구 - 어머니와 교사의 평가를 중심으로 -.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박성연·도현심·정승원 역(1996). 부모-자녀관계 - 생태학적 접근. 서울: 학지사.
- 박세정·박인전·최영희(2000). 어머니 우울성향과 부모 행동에 대한 아동의 지각 및 아동의 생활 능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 5(1) 139-156.
- 박영애·최영희·박인전(2000). 아동이 지각한 어머니 양육행동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족복지학회, 5(2), 161-182.
- 박영애·최은경(2001). 부모의 양육행동 및 인성과 아동의 정서지능과의 관계. 한국가정관리학회지, 19(5), 221-238.
- 윤은수(1982). 부모의 성격이 학령전 아동의 성격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고찰. 서울여자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상로·변창진·진위교(1996). 성인용 성격진단검사. 중앙적성 출판사.
- 이은수(1985). 어머니의 인성특성과 양육태도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이종용(1975). 부모의 인성특성이 자녀의 인성형성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조만선(1996). 어머니의 성격특성과 자녀가 지각한 어머니의 양육태도간의 상관.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주소영(1995). 교교생이 지각한 父-자녀간 애정적 유대와 대인관계 성향간의 관계 연구. 이화여자

- 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한중혜(1980). 부모의 인성 및 양육태도와 학동기 자녀의 인성과의 관계 연구. 서울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청구논문.
- Baumrind, D. (1967). Socialization Practices associated with dimensions of competence in preschool boys and girls. *Child Development*, 38, 291-327.
- Baumrind, D. (1973). The development of instrumental competence through socialization. *Minnesota Symposium in Child Psychology*, 7, 3-46.
- Beardslee, W. R., Bemporad, J., Keller, M. B., & Klerman, G. L. (1983). Children of parents with major affective disorder : A review.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140, 825-832.
- Beardslee, W. R., Schultz, L. H., & Selman, R. L. (1987). Level of social-cognitive development, unadaptive functioning, and DSM-III diagnosis in adolescent offspring of parents with affective disorders : Implications of the development of the capacity for mutuality. *Developmental Psychology*, 23, 807-815.
- Becker, W. C. (1964). Consequences of different kinds of parental discipline. In M. L. Hoffman & L. W. Hoffman(Eds.). *Review of child development research*(Vol. 1, pp. 169-208). New York : Russell Sage Foundation.
- Bettes, B. A. (1988). Maternal depression and motherese : Temporal and intonational features. *Child Development*, 59, 1089-1096.
- Cohler, B., & Grunebaum, H. (1975). Perceived life-stress and Psycho-Pathology among Mothers of Young Children. *American Journal of Psychiatry*, 45, 58-73.
- Cohn, J. F., Matias, R., Tronick, E. Z., Connell, D., & Lyons-Ruth, K. (1986). Face-to-face interactions of depressed mothers and their infants. In E. Z. Tromck & T. Field (Eds.),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Vol. 34, pp. 31-45). San Francisco : Jossey-Bass.
- Colletta, N. D. (1983). At risk for depression : A study of young mothers. *Journal of Genetic Psychology*, 142, 301-310.
- Crnic, K. A., & Greenberg, M. T. (1985). *Parenting daily hassles : relationships among minor stress, family functioning, and child development*. Paper presented at the biennial meeting of the Society for Research in Child Development, Toronto.
- Demo, D. H., Small, S. A., & Savin-Williams, R. C. (1987). Family relations and the self-esteem of adolescent and their parent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9, 705-715.
- Downey, G., & Coyne, J. C. (1990). Children of depressed parents : An intergrative review. *Psychological Bulletin*, 26, 3-6.
- Freud, S. (1952). *New introductory lectures on psychoanalysis*. New York : McGraw Hill.
- Gecas, V., & Schwalbe, M. L. (1986). Parental behavior and adolescent self-esteem.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8, 37-46.
- Jersild, A. T. (1962). *Child psychology*. New Jersey : Eaglewood Cliffs Prentice Hall.
- Jessop, D. J. (1981). Family relationship as viewed by parents and adolescents : A specification.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43, 95-107.
- Rohner, R. P., Hann, B. C., & Rohner, E. C. (1980). Social class differences in perceived parental acceptance-rejection and self-evaluation among Korean American Children.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55-66.
- Saavedra, J. M. (1980). Effects of perceived parental warmth and control of on the self evaluation of puertorican adolescent males. *Behavior Science Research*, 15, 41-54.
- Schaefer, E. S. (1965). Children's reports of parental behavior : An-inventory, *Child development*.
- Tein, J. U., Roosa, M. W., & Michaels, M. (1994). Agreement between parent and child reports in

parental behaviors. *Journal of Marriage and the Family*, 56, 341-355.
Tronick, E. Z., & Field, T. (Eds.) (1986). *New*

Directions for Child Development : Maternal Depression and Infant Disturbance(No. 34). San Francisco : Jossey-Bass.